

대중 호응 이끌어내는 축제문화 개발 시급

상징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범종단적인 참여만 이뤄지면 해결할 수 있다. 또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전략기획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봉축행사를 위해 1년 동안 준비하지만 한 달이나 일주일 내에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봉축행사팀 내에 전략기획팀을 반드시 만들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 내야 한다.

박상희 : 지금까지 사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봉축위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못 따라 가는 실정이다. 기술개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 이끌어내야

수암 : 각 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러자 산사음악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겼다. 그들은 각 사찰의 입맛에 맞게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고 만들어준다. 봉축행사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결합해야 한다.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부에 전략기획팀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박상희 : 봉축행사의 기본은 참가자에 맞춰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받쳐주고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가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장엄등, 전등등, 기술, 음향, 의상 등은 외부 인력과 공동 작업을 해왔다. 좀 더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권두현 : 산업화된 문화가 활성화되기는 매우 어렵다. 기업가는 나쁘게 말하면 벌여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들로 인해 전문가의 입장을 견인하게 된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뤄지면 전문가가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 진다. 따라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종단이나 사찰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기본 소스는 봉축위가 제공하지만 활용 방안은 각 종단이나 사찰에서 찾게 된다. 연등축제에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박상희 : 우리는 차별이나 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봉축행사를 통해 종단이나 사찰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특성화해서 드러내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즉 각 종단이나 사찰들이 추구하고 내세우는 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권두현 : 지역적인 것들과 종단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각 사찰을 장엄할 수 있는 방식, 예를 들면 일주문이나 경내를 장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등으로 사찰을 장엄하는 목표점을 제공해 준다면 연등축제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박상희 : 중요한 것은 연등축제는 개인들의 축제라는 것이다. 즉 개인 정성을 다해 다양한 등을 만들어 나오는 것이 중심이다.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아직은 중간 단계다. 현재 각 사찰에서 등을 대량



수암 스님 요식적 행위 제외하고 더 흥겹게 박상희씨 매년 새로운 이벤트성 행사는 곤란 권두현씨 사찰 단위부터 한 단계씩 변화를

생산하고 있다. 어떤 등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연등축제의 핵심이다. 앞으로 개별등이 다양해져서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야 한다.

수암 : 밥집에 등을 들고 갈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등을 공장에서 인쇄했다, 직접 만들었는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용이 중요할까? 현재 등 크기가 작다. 잘 보이지 않는다. 등을 크게 하면 밝지가 않다. 밝게 하려면 현실적인 문제 부딪힌다. 잘 보이고 밝고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사찰 주지스님들의 회생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순수 부지다.

박상희 : 장엄등 때문에 개별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서울의 경우 장엄 등 시장은 안한다. 오히려 개인등 시장은 하고 있다.

연등축제는 개인등 축제인데, 장엄등은 한 개 정도 만들고 개인등을 발전시키자.

권두현 : 1년에 한번 절에 오는 사람들은 뭘 즐겨야 할지 모른다. 사찰 문화를 대중화, 보편화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

수암 : 문화마당이 사찰로 가야 한다. 문화마당이 부처님오신날 하루 종일 사찰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것을 하려면 교육원 인력이 필요한데 부처님오신날 당일 공양 수밖에 인력이 모두 소진된다. 또 한쪽에서는 등을 접수하고 다른 쪽에서는 등을 단다.

박상희 : 부처님오신날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공양 수밖에 큰일이다. 그러나 연등축

제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점등식을 하고, 개 사찰별로 손수 만든 등을 가지고 주차장이나 마당을 빌려 연등축제 출정식 형식처럼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일종의 미니 연등축제다. 이렇게 하면 내부적인 결속력도 다질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또 부처님오신날 당일 등을 밝히는 방법도 있다. 연등축제 이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수암 :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한다. 붓다콘서트에서 록 공연을 한 번 본적 있다. 그런데 그것은 불자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불자 자녀들을 위한 공연이었다. 문화코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코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박상희 : 축제음악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율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음악이 없다. 한두 곡의 찬불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중음악이다. 우리 음악의 필요성을 느껴 국악을 접목한 축제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아이들은 시련당한 반면에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좋아하는 것 같다.

수암 : 문화라는 것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기가 힘들다. 계층별 문화가 존재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씩을 드리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먼저 권두현 사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다. 연등축제가 매년 변화하고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권두현 : 축제는 만드는 과정이 더 즐거운 것이고 축제를 하는 순간은 짧다. 또 경험이 쌓여야 잘할 수 있다. 경험을 많이 제공하면 더 나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연등도 기존의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시켜 가는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된다. 한꺼번에 변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조금만 변화에 집중하자. 지금은 개별 사찰 단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봉축위가 지원해야 한다. 연등축제를 하는 기본으로 사찰문화를 만들면 지금의 연등축제처럼 사찰문화도 만들어질 것이다. 변화는 조금씩 쌓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벤트적 사고로 보지 말아야

사회자 : 수암 스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다. 부처님오신날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봉축법요식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정적이고 딱딱하다는 주장도 있다.

수암 : 의식은 의식일 수밖에 없다. 딱딱한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제안한다면 봉축법요식 때 기도문과 발원문이 중복되는데, 종단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제외하고 총무원장 스님 기원문과 종정 스님 법어만 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것을 진행하면 좋겠다. 불자들은 봉축법요식을 아무도 안 본다. 보는 사람은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적인 행위는 제외하고 하나의 흐름 속에서 흥겹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또 봉축가는 지금보다 조금 흥겨운 것을 해도 좋을 것이다.

사회자 : 내년부터 연등법회를 할 장소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대문아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담당자로서 계획은?

박상희 : 고민스럽다. 일단 단체들의 참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향해도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다.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그 즐거운 축제 마당을 할 수 있는나가 고민이다. 참가자들이 운동장 안에서 어떤 열정을 쏟아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심을 갖게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고민하고 해결할 것이다.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다만 이벤트적인 사고로 봉축행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봉축행사를 이벤트로 보면 매년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환희심을 가지며 변화하고 있다.

정리=남동우·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봉 축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 원로위원장: 범종
◆ 부 총 정: 혜일
◆ 중앙위원장: 성민

◆ 감찰위원장: 상산
◆ 감찰부장: 지오
◆ 감찰국장: 지호

◆ 총무원장: 혜인
◆ 총무부장: 동산
◆ 재무부장: 법경
◆ 교무부장: 월곡
◆ 사회부장: 자명
◆ 문화부장: 지우
◆ 비구니부장: 중비

○ 총림
- 삼화총림 백회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전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원로위원: 성민, 혜일, 혜경, 범종, 백공, 천광, 일봉, 해남, 봉산
◆ 중회의장: 정봉

◆ 중앙선원장: 도일

◆ 교육위원장: 일봉
◆ 교육부장: 봉선
◆ 교육국장: 성덕

◆ 포교위원장: 정오
◆ 포교부장: 정산
◆ 포교국장: 묵헌

◆ 호계원
◆ 호계부장: 월성
◆ 호계국장: 다정

◆ 기획실장: 정금옥(불이성)
◆ 총무과장: 조일

◆ 부원장: 지운
◆ 총무과장: 도성
◆ 재무과장: 대도
◆ 교무과장: 진목
◆ 사회과장: 도홍
◆ 문화과장: 효천

◆ 비구니국장: 법린, 덕산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남부교구 총무원장: 상산
서울서부교구 총무원장: 법선
서울동부교구 총무원장: 대도
서울북부교구 총무원장: 정담
인천 교 구 총무원장: 혜정
부산중부교구 총무원장: 정오
부산동부교구 총무원장: 봉선
경기남부교구 총무원장: 혜안
경기동부교구 총무원장: 도오
울 산 교 구 총무원장: 수덕
대전 교 구 총무원장: 효경

강원교구 총무원장: 광덕
충남교구 총무원장: 무광
충북교구 총무원장: 백공
경남교구 총무원장: 지운
경북교구 총무원장: 해관
전남교구 총무원장: 월산
전북교구 총무원장: 정산
제주교구 총무원장: 덕산
일본동경 총무원장: 정대
미국뉴욕 총무원장: 성산
중국남경 총무원장: 해산

◆ 전국신도회
회 장: 허정석
고 문: 김윤주
부산신도회장: 박해식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 2027, 3445-7375~6
FAX : 02-511-2028

인터넷 주 소 : www.shbuddhism.or.kr
www.samhwade.com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대학 : www.samhwade.com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